

윤리뿌시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2021 윤사뿌시기

제시문과 선지 체크로 훑아보는
마지막 윤리 개념
볼륨 1에서 4까지

윤리충 지음

2021 윤리와 사상 복시기

윤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의 중요도를 매기고, 선지를 익숙한 문제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계교재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정답 선지 때문에 아까운 매력적 오답 선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 복시기는 그렇게 놓치게 되는 제시문이나 개념을 선지로 풀어 모든 심화 개념을 머리에 각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학습하였던 선지와 제시문을 낯설게 함으로써 자신있던 부분을 수능 전 '마지막으로' 틀려보고,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학습하는 것, 검증받은 독학용 교재인 윤리 복시기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전체적 구성

-고난도 선지 복시기: 각 볼륨별로 연계교재, 기출, 자작 변형 문제의 ox 선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납득이 안가시는 부분은 해당 시즌의 인용 자료를 직접 구해 병행하며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선지 복시기 빠른 정답: 해설 보기 전 일단은 정오만 체크하고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생각에서 답지와 해설을 분리했습니다.

-고난도 선지 복시기 해설: 교과과정 내의 내용과 더불어 교과 외의 흥미로운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윤리 복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고난도 제시문 복시기: 제시문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충분히 독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지문 안에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항대립이거나 분류이니 유념하시면서 심화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몰라도 제시문 복시기 만큼은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여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흑백으로 뽑을 경우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서로 다른 색 사이의 구별이 힘듭니다.

볼륨별 특징

vol1- 연계편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선지들을 종합하였습니다.

vol2- 기출 편입니다. 금년 기출을 제외한 역대 기출 선지 중 엄선하여 골랐습니다.

vol3- 올해의 트렌드 편입니다. 올해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의 선지를 통해 올해의 출제 경향을 학습합니다.

vol4- 파이널 자작 변형편. 제시문과 낱개의 개념을 선지로 만들고, 이전 볼륨에 나온 쉬운 선지를 더 어렵게 변형하였습니다.

학습방향은?

- 풀면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선지와 헷갈리는 선지에 1차로 밑줄 친 후 해설과 비교. 며칠 후 다시보며 또 틀리거나 납득 실패시 별표. 그 후 또 반복될 시 형광펜으로 칠한 후 관련 개념을 심화 학습하여 수능 쉬는 시간에 훑은 후 만점 받기!
- 선지 복시기 말고도 제시문 복시기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선지 변형보다 제시문 변형이 더 컬러로 나옵니다.
- 문제는 5개씩 풀고 정답 확인 후 해설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종 문의사항 및 질문은 카카오톡 아이디 sinsin5614 또는 이메일 sinsin5614@naver.com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동양사상

1. 맹자는 인간은 본성이 선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 공자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예를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3. 맹자는 인과 의는 예를 익혀 갖게 된 도덕적 성품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4. 주자는 이치를 궁구했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말과 같다고 보았다 [2021수특] ()
5. 이이는 철정은 정의 전부로서, 사단을 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6. 이황은 이는 형태와 운동이 없고 기는 형태와 운동이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7. 정약용은 인의예지는 선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8. 정약용은 인의예지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확충해야 얻어지는 덕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9. 이황과 정약용은 모두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만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0. 이황은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11. 정약용은 인간의 악행은 모두 타고난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2. 정약용은 인간은 욕구를 제거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3. 소승불교에서는 불성을 직관하기 위해 자아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4. 석가모니는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여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5. 석가모니는 도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6. 세친은 사물에 자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7. 교종에서는 깨달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본다 [2021수특] ()
18. 석가모니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철저히 통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19. 교종과 선종은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0. 원효와 의천은 모두 참된 마음(一心)을 부정하면서 화합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1. 혜능은 선정과 교리를 본체와 작용으로 보았다 [2021수특] ()
22. 세친은 용수와 달리 현상 세계를 만들어 낸 마음을 비우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3. 용수와 세친은 모두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4. 노자는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은 인위적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5. 도교에서는 도덕적 선행을 실천하여 신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6. 공자는 노자와 달리 성인은 백성들이 도덕적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7. 장자는 도덕규범을 실천하여 정신적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8. 도교는 도가와 달리 도덕적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양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1수특] ()
29. 장자는 석가모니가 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21수특] ()
30. 박지원(실학)은 학문의 궁극 목적은 물질적 풍요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1. 박지원(실학)은 이용후생은 도덕의 실현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다 [2021수특] ()
32. 이항로는 신기선과 달리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문물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특] ()
33. 최제우는 이항로, 신기선이 보국안민 실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21수특] ()
34. 최제우는 이항로와 신기선이 남·녀·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음을 비판할 수 있다 [2021수특] ()
35. 순자는 법만이 사욕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2021수완] ()

고난도 선지 뿌시기 빠른 정답

동양사상

XXOXO XXXXX XOXOO
XXOOO XXXXO OOXXO
OOXXO OOXOX XXOXX
OXXOX

서양사상

XOXXO XOOOX XXXOX
XOXOX OOXOO XXXXX
OXXXX XXOXX XXOXX
XXOOX X

사회사상

XXOXO XXXXX OXXXX
XXOXX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지만,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그 쾌락을 포기한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 뒤에 더 큰 쾌락이 따를 경우, 우리는 그 고통을 쾌락보다 낫다고 본다.

-에피쿠로스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로크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밀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로크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홉스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키르케고르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아퀴나스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1. 칸트 부정 벤담 긍정이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으므로 의지의 선함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반면 벤담은 의지가 선하건 악하건 산출된 결과의 유용성을 두고 도덕적 행위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의지의 선함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2. 칸트 벤담 모두 부정이다. 벤담은 준칙에 따랐어도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칸트는 모든 준칙이 아니라 정언명령의 형식에 맞는 준칙이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준칙이란 행위의 원칙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다 라는 준칙은 준칙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준칙은 보편화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될 수 없다.
3. 케인스는 전면적인 계획 경제가 아니라 일부분 계획 경제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케인스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로서 시장 경제를 당연히 인정한다.
4. 둘 모두 복지 정책을 통해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케인스는 일부분 계획 경제를 받아들여 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일부 주요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산의 공유제를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5. 순자는 백성이 스스로 만든 예를 지켜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순자에게 예는 백성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6. 둘 모두 인간에게 도덕적 인식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순자도 도덕적 인식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도덕적 인식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도덕이 무엇인지 아예 알 수 없다는 말로, 예를 아무리 배워도 알지 못하고 악한 상태라는 말과 같다. 순자는 인간은 예를 통해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로스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도덕적 원리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의무끼리 충돌할 시 악한 의무는 유보되고 더 알맞은 의무는 실재적 의무가 된다고 보았다. 어떠한 절대적인 정언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의무로서 유보될 가능성이 있는 정언명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8.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필연적 질서에 의해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정도 필연적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다. 참고로 스피노자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했는데, 능동적 감정은 감정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수동적 감정은 그렇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다. 그는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 즉 정념은 벗어나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다.
9. 둘 모두 긍정할 수 있다. 흄은 감정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이자 동기이며 이성도 감정의 노예로써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성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연의 필연성을 알고 자연의 필연성을 사랑하는 감정인 능동적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둘 모두 맞다.
10. 목자가 모든 전쟁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목자는 타국에 대한 침공을 반대하는 비공을 강조하였으나 외세의 침입에 따른 불가피한 방어전쟁은 허용한다.
11. 둘 모두 부정할 선지이다. 이황과 이이는 모두 성리학자이며, 성리학에서는 리, 즉 본연지성은 순선하고, 기질의 차이로 인해 선과 악이 있다고 보았다. 리 자체는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비유를 하자면 리는 투명한 유리구슬이고, 나쁜 기질은 흄이다. 구슬에 흄이 묻어있다고 해서 구슬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12. 자눌은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는 것, 즉 돈오를 위해 경전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돈오 이후에 깨달음을 위해 경전 공부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돈오 자체는 경전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3.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인간이 제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자연법은 인간 이성으로 인해 인식된 영원법의 일부이다.
14. 아퀴나스는 신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신의 계시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꾀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은 이성의 우위에 있다.
15. 흄스는 국가의 막강한 권력은 구성원들의 자기 보존권을 침범할 수 없으며, 구성원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권위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에 강제력이 없으면 구성원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 계약은 파기되고 국가는 권위를 상실한다.
16.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참된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나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추구하게 되면 쾌락이 고통이 되는 쾌락의 역설에 빠진다.